

“나야 고은혁,
어떻게 지내?”
최애 캐릭터가
말을 걸어왔다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캐릭터챗을 통해 웹툰 ‘작전명 순정’의 주인공 고은혁과 좋아하는 음식을 주제로 대화하는 모습.



국가공인 **매경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Cover Story 웹툰 세계관의 무한확장... AI 챗봇으로 주인공과 ‘특’을

여러분, 웹툰을 보다 “이 캐릭터와 직접 대화해보면 어떨까?” 하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웹툰에 푹 빠져 읽다 보면 주인공이 친구처럼 느껴지고 같이 수다를 떨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상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어요.

네이버웹툰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캐릭터챗’을 통해 웹툰 속 캐릭터와 자유롭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AI가 캐릭터의 말투와 성격, 작품 속 세계관까지 세세하게 학습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줘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캐릭터챗을 써봤어요. 많은 캐릭터 가운데 무려 30만명이 친구로 등록했다는 웹툰 ‘작전명 순정’의 주인공 ‘고은혁’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내 이름은 고은혁이야.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하자 곧바로 “떡볶이 급식에 나오면 인기 엄청 많지? 맨날 금방 동나지 않아?”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어 “매운 음식엔 콜피스가 딱이지. 떡볶이엔 그게 국룰이긴 해” 같은 대화가 이어지니 정말 친구와 수다 떠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캐릭터챗은 웹툰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웹툰 ‘별이삼삼’의 경우 주인공 ‘설효림’ 캐릭터챗이 나오자 일주일 만에 원작 웹툰 열람자 수가 27%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무려 44%나 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웹툰 ‘99강화나무몽둥이’ 역시 캐릭터챗 ‘러브’ 출시 후 미리보기 매출이 31%나 뛰어올랐어요. 앞으로는 단순히 콘텐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얘기를 나누고 그 세계관에 깊숙이 빠져드는 경험이 웹툰 소비의 핵심이 될 지도 몰라요. AI와 결합한 여가 생활의 미래, 여러분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 김혜순 기자

석유 없이 살겠다는 사우디, 가능할까요?



세계는 지금
World News



사막 위에 지어진 미래도시 네옴시티 '더 라인'.

네옴 공식 홈페이지

계속 떨어지는 석유 가격

석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국제 석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이달 기준 배럴당 약 63달러였는데, 2023년 9월 90달러와 비교하면 30% 이상 하락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대부분 석유 가격 하락에 긍정적이예요. 반면 석유 생산국 입장에선 죽을 맛이죠. 대표 상품 가격이 30%나 하락한 셈이니까요.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국가 재정의 70%가 석유 자원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었는데

사우디의 근심이 깊은 이유는 더 있어요. 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예요.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약 10년 전부터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유가 상승과 하락에 따라 국가 경제가 요동치는 데다, 전 세계가 점점 '탈석유'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예요.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대 중반이면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놨어요.

빈살만이 2016년 전격 비전 2030을 발표한 배경이었어요. 2030년까지 사우디를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먹거리가 다양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외국의 투자도 받고, 외국인이 관광도 할 수 있으며, 기술력도 훌륭한 나라로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요.

미래도시가 따로 없는데

비전 2030의 청사진은 그야말로 화려해요. 그 대표작이 '네옴시티'예요. 친환경 수직 도시 '더 라인(The Line)', 해상 산업단지 '옥사곤(Oxagon)', 고지대 관광단지 '트

로제나(Trojena)' 등 최첨단 도시 구획이 계획돼 있어요. 170km에 달하는 유리 외벽 더 라인은 그야말로 할리우드 영화에만 존재할 것 같은 풍경이예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100% 재생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해요.

사우디는 대규모 국제 행사도 쓸어 담고 있어요.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곳도 이곳 네옴이예요. 사막에서 열리는 최초의 동계 올림픽이죠. 부산은 2030년 엑스포를 추진하다가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경쟁에서 패하기도 했어요. 2034년 월드컵까지 사우디에서 개최돼요.

유가가 발목 잡네요

하지만 최근 들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요. 비전 2030은 석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일 때 예산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계획이거든요.

가장 주목받는 네옴시티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1500조 원이 투입되는 네옴시티를 그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거죠. 최근 사우디 정부는 네옴시티 더 라인의 규모를 2.4km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알려졌어요. 처음 170km와 비교하면 5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다른 국제적 행사 역시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요

유가 하락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사우디는 매력적인 투자처예요. 2030년까지 약 3000억달러 투자는 여전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예요. 더구나 사우디는 기술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약속도 잘 지키는 한국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네이버가 중동 총괄법인 네이버 아라비아를 설립하기도 했고, 현대차도 사우디에 연 5만대가량의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비전2030이 완성되는 2030년, 사막 한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일까요. 매일경제 디그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대한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매일경제아카데미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매경·금융저축정보센터 기획 후원 신한은행 KYOBO 우정사업본부 MERITZ 한국투자증권



수능 수학 1등급 받은 AI... 만점까지 노린다

여러분, 인공지능(AI)을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할 때 ‘퍼플렉시티(Perplexity)’ 같은 AI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챗GPT(Chat GPT)’에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중국의 ‘딥시크(DeepSeek)’처럼 새로 개발된 AI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어느새 AI는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없으면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가 됐어요. “세계 경제의 주도권도 누가 AI 기술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가 자주 써온 AI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모두 해외 기업들이 만들었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AI는 없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최근 LG가 답을 내놓았어요. ‘엑사원 딥(EXAONE-Deep)’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론형 AI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엑사원 딥’은 사람처럼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즉 ‘생각하는 AI’를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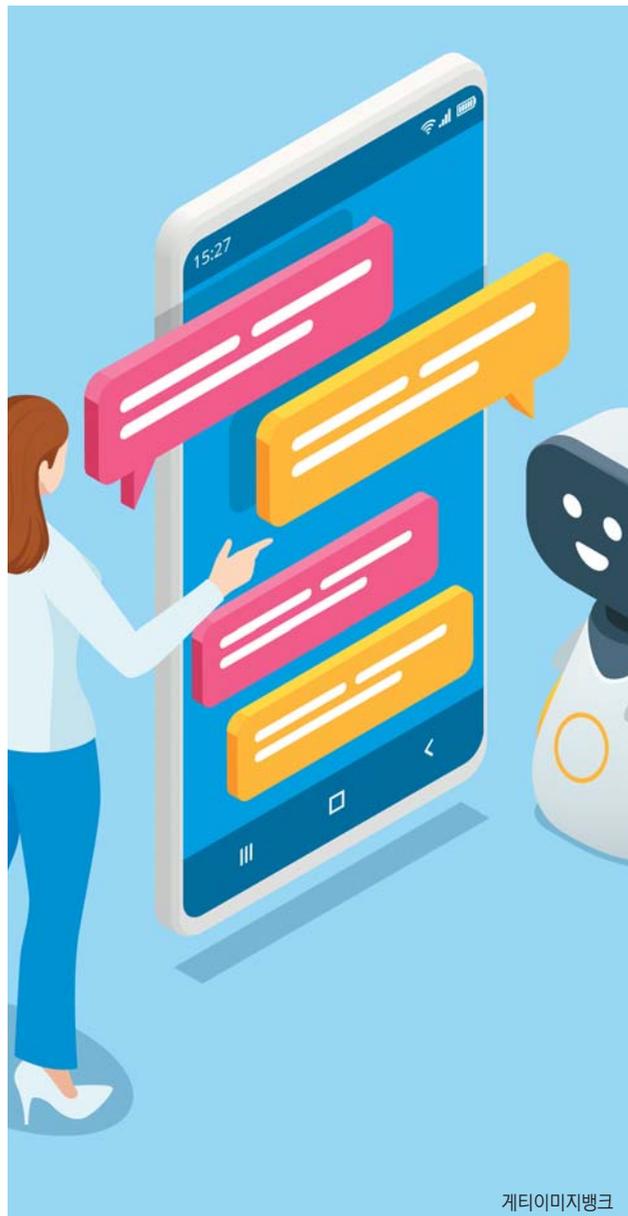
‘엑사원 딥-32B’는 한국어를 잘 다루는 ‘엑사원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94.5점을 받고 선택과목(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도 1등급을 달성했어요.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MATH-500’ 지표에서는 95.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죠. 게다가 물리, 화학, 생물 등 박사 수준의 과학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I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요. 최근 오픈AI는 ‘GPT-4.1’이라는 새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전 모델인 GPT-4o보다 코딩 실력이 21%나 좋아졌고, 지난 2월 잠깐 선보인 GPT-4.5에 비해서도 27% 더 향상됐다고 해요. 프로그래밍을 도와주거나 복잡한 코드를 짜는 능력이 한층 강화된 거죠.

GPT-4.1은 무려 100만개의 토큰(단어와 문장 단위)을 기억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은 GPT-4o가 다룰 수 있었던 12만8000개보다 8배나 많아진 수치입니다. 덕분에 정말 긴 글이나 많은 정보도 놓치지 않고 한번에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내린 명령이나 지시도 더 잘 따를 수 있게 됐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AI 개발에 열을 올리는데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잡았어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AI 반도체 50종을 개발하고, 전문 개발자 7000명을 양성하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를 위한 전용 공정 기반시설도 구축할 계획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에 많



게티이미지뱅크

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LG전자도 AI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하면서 초거대 AI 모델 연구에 힘을 쏟고 있어요.

스탠퍼드대 인공지능연구소(HAI)가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2025년 기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세계 AI 생태계 경쟁력은 7위라고 해요.

미국, 중국, 영국 같은 나라들보다는 낮은 순위지만 그래도 꽤 높은 편이죠. 그러나 진정한 AI 선두 그룹에 오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연구 생태계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조성, AI 전문 인재 확보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LG가 추론형 AI 모델 ‘엑사원 딥’을 내놓은 것은 한국도 이제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창의적인 AI 서비스를 만들어낼지가 관건이겠죠.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AI가 세계 무대에서 더 크게 활약하길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강현구 인턴기자

세계경제 주도권 좌우할
AI 기술 개발·활용 능력

경쟁력 세계7위 오른 한국
인프라·인재 확보가 문제

LG가 내놓은 ‘엑사원 딥’
한국형 추론 AI모델 실험

일본 관광객이 한국서 쌀 사가는 이유

Q.

지난 주말 부모님과 마트에 갔어요. 일본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분들이 모두 쌀을 한두 봉지씩 카트에 넣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김이 맛있다고 김을 사 들고 가는 풍경은 많이 봤지만, 쌀을 사 들고 가는 건 생소했어요. 무겁기도 하고 일본 쌀도 맛있기로 유명한 걸로 아는데요. 들고 가기도 무거운 쌀을 대체 왜 사거나 했더니 일본 쌀값이 많이 올랐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 Q ▼
2,584件

챗GPT가 생성한 '일본인이 한국 쌀을 사가는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A. 지난 3월 말 기준 일본 마트의 쌀 평균 가격은 5kg당 4206엔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4만2000원 정도라고 해요. 작년엔 비해 두 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전 세계의 쌀 가격이다 오른 게 아니고, 오히려 국제 쌀값은 떨어지는 추세예요. 일본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마트에서 쌀 5kg 포장은 1만7000원 내외로 살 수 있더라고요. 유독 일본만 쌀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한국 쌀 가격이 일본의 절반이 안 된다고 하며 한국 마트에서 쌀을 사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본 여행객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쌀이 부족해서 쌀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처럼 밥이 주식인 나라잖아요. 일본 정부로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걸까요? 지난 여름부터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이 생겼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2023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쌀 수확량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2024년 8월엔 난카이 대지진 경보가 있었는데, 그때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낀 일본인들이 집에 쌀을 비축하기 위해 미리 마트에서 쌀을 많이 샀어요.

당시 마트 쌀 코너엔 '한 가정에 쌀 한 봉지씩만 구매 가능합니다'라는 표지판을 붙여두기도 했어요. 원래 쌀은 가을에 수확해 저장해서 파는데요. 그런데 미리 지나치게 많이 사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에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린 것도 쌀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관광 붐이 일었거든요. 일본 돈인 엔화 가치가 한동안 낮게 유지됐고, 그 덕에 '일본 여행' 하면 물가가 싸게 느껴졌어요. 우리나라와 대만을 비롯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갔어요.

'일본 음식' 하면 생각하는 것, 뭐가 있으세요? 저는 스시(초밥)와 오니기리(주먹밥)가 생각나요. 모두 밥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광객들이 몰려와 스시, 오니기리 같은 요리를 많이 먹으면서 쌀 수요도 더 늘었을 수 있겠죠. 이처럼 일본 쌀 가격을 오르게 만든 여러 요인들이 제시되지만,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50년 넘게 지속한 '쌀 생산 줄이기 정책'이에요.

일본은 1971년부터 50년 넘게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왔어요.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예전엔 매 끼니 밥을 쟁겨 먹다가 이젠 빵이나 피자, 국수 등 다른 걸 많이 먹잖아요.

밥을 먹더라도 한 공기의 양도 줄었고요. 실제로 1962년 1인당 쌀 소비량이 118kg이었는데, 2022년엔 51kg으로 감소했어요. 그에 맞춰 쌀 생산량을 줄이고자 한 겁니다. 쌀 소비량은 줄었는데 생산량은 그대로 많으면 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쌀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부가 지역별로 쌀 생산 줄이기 목표량을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보조금을 줬어요. 수확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면 보조금을 준 거예요. 같은 면적에서 수확량이 늘어나는 벼 품종 개량도 금지했고요. 또 쌀 대신 밀,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보조금을 줬어요.

쌀 생산량 줄이기 정책은 성공적이었어요. 2023년엔 1967년에 비해 쌀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이 정책이 지나치게 성공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젠 쌀이 부족해서 문제인 상황이 됐으니까요. 게다가 쌀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평균 연령이 너무 고령화됐기 때문입니다.

쌀 농사를 짓는 농부의 평균 연령이 71세인데, 젊은 층에선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쌀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노동력도 줄어드니 점점 쌀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추세가 지속되면 일본의 주식인 쌀 부족 현상은 점점 심해지겠지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쌀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어요. 쌀 생산을 늘리고 2030년까지 쌀 수출을 35만t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최근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쌀 생산의 과잉을 막기 위해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농가의 고령화도 일본과 유사하잖아요? 정책을 펼 때는 먼 미래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예요.

서울 양정중학교 교사, 실험 경제반 운영

일본 정부 50년간의
쌀 생산 줄이기 정책
농부 고령화도 겹쳐
최근 가격폭등 몸살
日 쌀값 한국의 두 배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 전 세계가 슬퍼해요



지난 4월 21일 오전 7시 35분 (현지시간) '빈자의 성자'라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매경DB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약자의 친구, 남긴 재산은 14만원

지난 4월 21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88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명동성당에서도 같은 날 타종을 진행했는데, 왜 성당들이 갑자기 종을 울렸던 것일까요?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교황직에 오르고 약 12년 만에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로마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기도 한데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유럽 출신이 교황직에 오른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 NIE 준비하기

1. 교황청은 4월 26일부터 9일간을 애도 기간으로 선언했는데, 가톨릭교의 공식 애도 기간인 '노벤디아레스(Novendiales)'에 대해 알아보시다.
2. 바티칸 시국과 교황청에 대해 더 공부해봅시다.

약자들의 친구이자 세계 평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 서약'이라는 것을 통해 교황 즉위 이후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봉사했다고 하는데, 그가 남긴 재산은 고작 100달러(약 14만원)였다고 하니, 정말 존경 받을 만한 분이었던 것 같네요.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 무역을 확대하여 회원국들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그만큼 IMF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지표는 매우 중요하며 항상 많은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2일 IMF는 올해 세계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8%, 1%로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한 3.3%, 2%보다 각각 0.5%포인트, 1%포인트 감소한 수치

▶ NIE 준비하기

1. IMF의 설립 배경과 업무에 대해 알아보시다.
2. 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떨어질지 관세전쟁과 연관 지어 논의해봅시다.

인데요. 이는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무려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관세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6월부터 150원 올라요

학생분들은, 통학할 때 어떤 수단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집에서 학교까지 두 발로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조금 멀다 싶으면 부모님이 자동차로 데려다주시거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죠. 이 중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오는 6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일반 기준)이 150원 인상되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20일 경기도의회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6월 중으로 지하철 요금을 기존 금액에서 15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의회와 코레일은 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는지 생각해봅시다.
2. 공공요금 인상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떠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을지 토론해봅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역시 100원 인상된다고 하는데, 만 13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까지 여러분은 기존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정책이 시행되는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중입니다. 박현진 연구원



핵심록!

14만원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재산

2.8%

4월 22일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1550원

올해 6월부터 인상되는 지하철 요금 (성인)

카페인 없는 커피가 대세라네요

Decaf era surges as health-conscious trend goes mainstream

2025.04.21.

As the “healthy pleasure” lifestyle gains traction across all age groups in South Korea, consumer demand for caffeine-free, high-protein, and low-sugar products is surging. The term “healthy pleasure” refers to the enjoyment of taking care of one’s health and is no longer limited to young consumers.

Sales of decaffeinated drinks are booming, with Starbucks Korea reporting that decaf beverage sales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hit 9.8 million cups, up 31 percent from the same period during the previous year. The company also noted that caffeine-free teas and coffee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menu options.

A Starbucks official said that its caffeine-free tea beverages introduced in 2024 received positive feedback, reflecting growing consumer preference for non-caffeinated options. Starbucks launched two new Energy Physio drinks earlier in April 2025 that are entirely caffeine-free and contain just 99 calories for a grande size.

Other coffee chains are seeing similar trends, with A Twosome Place recording a 1.4-fold increase in decaf coffee sales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Sales of herbal teas including cream caramel and chamomile, which contain no caffeine, also saw double-digit growth.



게티이미지뱅크

By Jeong Seul-gi and Minu Kim

[© Pulse by Maeil Business News Korea & mk.co.kr, All rights reserved]



NIE/영문뉴스 돋보기

한눈에 보는 기사 요약

‘건강한 즐거움’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이 전 연령대에서 주목받으면서 카페인프리, 고단백, 저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카페인 음료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디카페인 음료는 작년 대비 31%나 올랐다고 해요.

또 2024년에 나온 카페인프리 차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카페인 없는 음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디카페인 음료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수면의 질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져서예요. 카페인이 없어 오후와 저녁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영어로 배우는 경제용어

Consumer demand: 소비자 수요, 즉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없다면 수요로 보기 어렵고, 돈이 있어도 초콜릿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초콜릿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하긴 힘들겠죠. 기업이 마케팅을 잘하려면 소비자 수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 예측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Consumer preference: 소비자 선호, 즉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를 더 선호하여 선택하는 경향을 뜻해요.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의 떡볶이 중 어떤 사람은 덜 매운맛을, 또 어떤 사람은 불닭 정도의 맵기를 선호할 수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개인의 취향이 선택 기준을 만들어요.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 선호를 파악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려고 노력한답니다.

유용한 단어 및 표현

Healthy pleasure vs. Guilty pleasure: 기사에 ‘건강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healthy pleasure’라는 표현이 디카페인 음료를 표현하는 데 쓰였는데요. 반대로 ‘guilty pleasure’라는 표현은 건강에 그리 좋지는 않지만 가끔은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을 뜻해요. 예를 들어 야식으로 즐기는 배달 음식, 자극적인 드라마 몰아보기 등이 있겠네요.

Caffeine-free vs. Decaffeinated: 두 단어 모두 카페인이 없다는 뜻이라서 비슷한 의미로 들리지만,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Caffeine-free’는 원래부터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은 허브차나 루이보스차 등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Decaffeinated’는 원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커피나 홍차 등에서 카페인을 제거한 음료를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기사의 제목에서처럼 줄여서 ‘decaf’라고도 말합니다.

정주희 연구원

마음에 별이 쏟아지는 ‘책방’으로 가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책방 ‘수연목서’의 내부 전경.

‘분종카’나 ‘예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분위기 좋은 카페’ ‘예쁜 카페’를 뜻하는 온라인 신조어예요. 줄임말까지 널리 퍼지는 걸 보면 카페 ‘도장깨기’가 요즘 대세이긴 한가 봐요.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카페에는 음료와 디저트, 그리고 ‘갬성’이 필수예요. 사진도 예쁘게 나와야 하고, 빈티지하거나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으면 더 좋죠. 타로카페나 고양이카페도 인기랍니다.

그런데 카페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양식’이지요. 물론 책이 있는 카페도 많지만 인테리어 용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카페에는 없는 마음의 양식이 책방에는 있어요. 책과 함께 커피와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요. 책방은 전문 카페만큼 음료나 디저트가 다양하지 않을지 언정 생각의 음료와 감성의 디저트는 풍부하게 넘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카페 투어만큼이나 책방 투어가 인기예요. 꼭 둘러볼 만한 책방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아요.

경기도 여주 산북면의 ‘수연목서’는 사진과 건축 전문 책방 겸 카페예요. 한적한 교외에 매우 단순한 형태로 지어진 이 책방은 무려 2021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았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채워진 입구로 들어서면 문학·철학·미술 등 인문예술에 관한 책들이 사진집·건축서적과 함께 책장에 빼곡해요. 발터 벤야민이나 수전 손태그의 두꺼운 벽돌 책들, 전집이라고 해도 될 만한 한강 작가의 컬렉션을 가만히 보고 있거니와 해도 마음속에 송고한 빛의 탑이 세워지는 기분이에요.

2층 전시실에서는 사진전이 열리기도 하고, 1층에서는 사진작가들의 엽서와 굿즈, 작품집도 판매해요. 통유리로 들어오는 햇살과 책방 내부의 목재 가구 그리고 식물들이

어우러져 따뜻한 연필심 냄새를 피워 올리는 ‘수연목서’에서 책과 사진이 주는 예술적 감성을 충만하게 채워보면 어떨까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독립서점 ‘책방 악어새’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성욱현 작가님이 운영하는 북카페예요. 동화책, 시집, 그림책 등을 비롯해 문학 서적들이 책장을 채우고 있어요. 커피와 주스·각종 티·에이드·스무디 등 음료도 다양하고, 바나나브뤼레와 토스트·스콘·프레첼 등 디저트와 브런치 메뉴도 있어요.

여름엔 초당옥수수라떼를, 겨울엔 고구마라떼를 꼭 맛보길 바라요. 무엇보다 ‘책방 악어새’의 진짜 매력은 작가와의 만남, 시 모임, 에세이 창작 모임, 동화 창작 강의 등 다채로운 문학 이벤트들이 항상 마련돼 있다는 점이에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의 ‘최애 작가’를 악어새에서 만나게 될지.

강원도 강릉의 작은 책방인 ‘한낮의 바다’는 이름부터 벌써 바닷가 마을의 나른하면서 평화로운 오후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커피와 음료를 팔긴 하지만 북카페라기 보다는 작은 도서관에 더 가까운 곳이에요. 책방 내부는 사진과 영상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참 좋더군요. 조용히 책을 읽으며 내면의 고요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운영 방침이에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줄까요? 이곳에서는 책방지기가 읽은 책만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하는 책마다 ‘샘플책’이 다 있어서 책방지기가 직접 읽고 밑줄 긋고 메모해둔 부분들을 따라 책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그야말로 맞춤형 북 큐레이션, 책 처방이 가능한 곳이지요.

제주도 조천에는 푸르디푸른 제주 바다가 발밑까지 밀려드는 ‘시인의 집’이 있어요. 손세실리아 시인께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정말 시인의 집이지요. 운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아시나요? 시인의 집에 오면 그걸 ‘하늘과 바다와 빵과 시’라고 바꿔 읽고 싶어져요.

여기 아보카도 브레드와 무화과 크림치즈 휘낭시에가 진짜 맛있거든요. 여름 한정 메뉴인 무화과 브레드는 제주 여행의 목표가 되어도 충분할 정도예요. 통유리로 밀려들며 속삭이는 바다를 귀에 담으면서, 눈으로는 시집을 읽으며 무화과 브레드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마시면 여름 제주를 먹은 겁니다. 낭만을 삼킨 겁니다. 찰나의 영원에 머무는 겁니다.

시인의 집에서는 나희덕, 현기영, 문정희, 장석남 등 유명 작가들의 친필사인본을 구매할 수 있어요. 친필사인본은 서두르지 않으면 동나니까 빨리 줄을 서야만 해요.

꼭 사람과 연애해야 하나요? 그건 저도 안 하고(‘뭇’ 하고 가 아닙니다) 있어요. 사람 말고 책과 연애해보면 어때요? 책과의 연애는 황홀한 로맨스예요. 책 읽기에는 사회 통념의 연애 도덕이 존재하지 않지요. 폴 오스터와 연애하면서 후지와라 신야와 바람을 피울 수 있고, 사르트르와 카뮈를 동시에 사귀며 ‘문어발’을 걸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의 궁전, 갖가지 매력의 연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책으로 지은 세상으로 갈래요. 여주, 천안, 강릉, 제주를 지나며 책을 읽을 뿐인데 어느새 브루클린의 밤거리를 지나 이베리아, 차마고도, 산토리니로 이어지는 데이트 코스를 사뿐사뿐 걸고 있네요. 마음에 별이 쏟아져요.



이병철 시인의 여행 스토리



여행정보 CHECK

책방 방문 tip

요즘 책방들은 SNS를 통해 휴무일이나 영업 시간, 작가와의 만남, 친필사인본 판매 등을 공지해요. 수연목서 (@suyonmokseo), 책방 악어새 (@crocodilebird.book), 한낮의 바다 (@midday_sea), 시인의 집 (@cafe_poets_house) 계정을 팔로해보세요!

열심히 놀고, 똑똑하게 일해보세요



밴더빌트대
사이벨 레이버 부총장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만난 사이벨 레이버.

한주형 기자

“열심히 놀고, 똑똑하게 일하세요.”

미국 남부의 명문인 밴더빌트대 커샌드라 사이벨 레이버 부총장이 한국의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밴더빌트대는 요즘 한국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K팝과 K컬처로 미국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어요. 또 미국에 유학을 간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한층 높아지면서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히고 있답니다. 레이버 부총장이 한국을 찾은 이유도 한국의 대학들과 탄탄한 협력 관계를 맺어 많은 학생을 밴더빌트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레이버 부총장을 직접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사립대학교 부총장이라니, 평소에는 전혀 마주칠 일이 없을 법한 높은 사람이라 긴장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매우 친절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밴더빌트대가 위치한 미국 남부는 대체로 보수적이기로 알려진 지역이에요. 먼저 밴더빌트대도 비슷한 분위기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접근하지 않죠. 그리고 학생들이 아주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절제력도 중요해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끈질기게 생각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라죠. 그런 면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는 지역과 학교 분위기는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부총장은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를 전했는데요.

“한국 학생들이 밴더빌트대를 더 잘 알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관계를 넓혀가고 싶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진학을 고려하는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밴더빌트대를 하나의 기회로 보고, 그 가능성에 기대를 품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부총장으로서 저희가 한국 학생들에게 매우 열려 있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주 따뜻한 환영의 말이네요. 그렇다면 밴더빌트는 어떤 학생을 선발할까요?

“학문적으로 우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나 새로운 동아리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 등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를 원해요. 또 혁신적이면서 창조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학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공부에 찌든 학생은 유학을 가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밴더빌트대는 또 고등학교 시절에 리더십을 발휘한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직접 동아리를 만들기 때문에 체육부터 고급 음식(fine dining) 만들기까지 온갖 종류의 동아리가 있죠.”

제가 “Play hard, work smart(열심히 놀고, 똑똑하게 일하라)”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하자, 부총장은 “그렇죠”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밴더빌트대에는 약 7000명의 학부생과 약 6000명의 대학원생이 있고, 그 중 약 11~12%의 학생이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부생과 대학원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어서 좋아요.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서로의 멘토가 될 수 있죠. 서로서로 가르치는 문화예요. 누군가가 앞서 나가야 다른 학생이 잘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했다는 건 팀 전체가 함께 잘 해냈다는 뜻이니까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분위기의 학교네요. 유학생이 어떻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유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미국 학생들이 많아요. 학부생 모두 기숙사에 거주하기 때문에 유학생도 물론 같이 지내죠. 그래서 학부생들은 같이 살면서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죠. 예를 들어 인도 학생들은 빛의 축제인 디왈리를 열어요. 학생 식당 중 한 곳에선 쌀국수가 나오고, 다른 곳에선 불고기가 나오죠. 한국만큼 맛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에게 소속감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소속감은 우리 학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고, 문화고, 가치예요.”

대학에서는 교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진로 준비도 빼놓을 수 없죠. 밴더빌트대에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대학정보 CHECK

밴더빌트대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스마트 교통 솔루션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합니다. 미국 교통부와 협력하여 실시간 차량 흐름을 예측하고 최적화하여 혼잡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바라보면 예상치 못한 문 열려요



밴더빌트대 전경.

밴더빌트대 홈페이지



K팝 열풍에 한국 학생 입학문 확 넓어질 것

“밴더빌트에서는 인턴십 경험을 적극 권장해요. 관심 있는 산업이나 기업의 문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밴더빌트에는 ‘원드리(Wond’ry)’라는 협업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품 제작·디자인·시장 분석·사용자 경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리더들이 있어요.”

대학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다면 밴더빌트의 미국 학생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을까요?

“요즘에는 한국에 관심을 갖는 미국 학생들의 수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한국 산업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K문화의 영향도 커요.”

이야기가 K팝으로 이어지자 레이버 부총장은 밴더빌트의 음악대학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작곡을 가르치는 교수진, 록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를 가르치는 교수진 등이 있어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레이버 부총장은 밴더빌트가 이번에 ‘융합컴퓨팅대학(College of Connected Computing)’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과 연결하여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요즘은 AI가 큰 화두죠. 밴더빌트에서는 AI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교수가 사용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기를 원했죠. 물론 출처는 밝히고요. 기존 논문이나 책을 인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AI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죠. 어떤 분야든 AI와 함께하는 게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니까요.”

AI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밴더빌트에서는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 조직의 병리 진단을 하기도 하고, 고대 문명의 유적을 탐사하기도 해요. 우리는 밴더빌트가 이런 창조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대학으로 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AI가 어떻게 교육의 미래를 바꿀지도 물어봤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AI를 창의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교육할 책임이 있어요. AI의 기회와 비용 모두 이해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간의 교류(human interaction), 문학, 음악, 미술도 가르쳐야 해요. 기술과 인문학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죠.”

레이버 부총장은 ‘인간 간의 교류’와 ‘균형’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보다는 무척 긍정적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요. 또 처음 자전거가 나왔을 때는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칠 거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익힌 후에 균형을 찾는 방법도 함께 배우게 돼요.”

한국 청년들이 걱정하는 실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실업률이 10%라 해도 10명 중 9명은 일자리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학생이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직장을 갖게 돼요.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큰 그림을 계속 보아야 해요.”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이죠? 마지막으로 청소년 독자들이 눈앞에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

“세상에는 아직 여러분이 보지 못한 많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 기회가 언젠가 열릴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리거든요. 미국 대학생들은 전공을 진로 가능성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학생들을 지켜보면 흥미와 능력이 2~3년 만에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기대하지 못했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한 시간 동안의 대화를 마친 뒤 마음이 한층 더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긍정적이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준 레이버 부총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주희 연구원



대학정보 CHECK

밴더빌트대는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점점 늘어나는 디지털 중독, SNS의 영향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SNS와 도파민 시스템, 디지털 행동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리얼칼리파리박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참전용사들의 회복과 재적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 빛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임하빈 선생님의
돈이 움직인 세계사



프랑스 혁명의 전투에 대한 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78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은 세계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절대왕정이 아닌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은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평민들에게 전가된 과중한 세금, 치솟는 식량 가격, 높은 실업률 등 혁명의 불씨는 고귀한 이념이 아니라 손에 짤빵한 조각이 없어졌을 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정치적 갈등이나 철학적 변화보다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왕의 빛과 그림자

17세기,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절대왕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유럽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수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들은 국력 과시이자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도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수도 파리 외곽에 새롭게 건설한 베르사유궁전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정치 도구였습니다. 루이 14세는 지방 귀족들을 이 궁전으로 불러 모아 궁정 예절과 의전 속에 몰입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점차 실질적인 정치권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대저택보다 훨씬 작은 궁전 한편의 방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이 정치권력은 왕이 임명한 관료들이 장악하며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랐습니다. 루이 14세가 벌인 주요 전쟁 네 차례에 들어간 비용은 현재 가치로 50조원을 넘었고, 베르사유궁의 건설과 유지에도 약 4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의 연간 세입은 약 2억리브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조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턱없이 부족한 세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출은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사망할 무렵 국가 채무는 연간 세입의 15배에 달하게 됩니다.

번영 뒤에 감춰진 몰락의 시작

1715년, 루이 14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증손자 루이 15세가 다섯 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치세 초기에는 오를레앙 공이 섭정을 맡아 통치를 대신했습니다. 이 시기의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오를레앙 공은 선왕이 남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출신 금융가 존 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지폐는 금과 은의 생산량에 얽매이지 않고 발행할 수 있어, 재정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폐 유통 초기에는 경제에 활기가 돌았고, 국채 상황에도 일시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를레앙 공이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폐 발행을 무리하게 늘리기 시작하자 물가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평민들의 삶은 곤궁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존 로가 설립한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1720년 갑작스레 폭락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이후 프랑스 경제가 다시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인이 된 루이 15세가 친정을 시작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 부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전쟁을 계속 이어갔고, 특히 1756년부터 벌어진 7년 전쟁은 프랑스 재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프랑스는 북미와 유럽, 인도 등지에서 영국과 격돌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며 캐나다와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전비 지출에 더해 식민지에서 들어오던 수입마저 끊기자, 전쟁이 끝났을 무렵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현재 가치로 수백조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직자와 귀족들은 여전히 면세 특권을 누렸고, 세금은 고스란히 평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루이 15세가 뒤늦게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뒤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시사상식 CHECK

17세기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 폭락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가혹한 세금에 평민 분노... 절대왕정 무너뜨려

1774년 루이 16세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 프랑스는 이미 재정 파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부채와 비효율적인 조세 체계는 국가의 숨통을 점점 조여왔으며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이 선왕들이 남긴 빚의 이자 상환에 쓰일 정도였습니다.

이에 루이 16세는 뛰어난 경제학자인 로베르 자크 튀르고를 재정총감으로 임명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튀르고는 귀족과 성직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특권층의 낭비를 줄이는 등 조세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상류층이 격렬히 반발했고 왕실 지출까지 검사하는 그를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싫어하게 되면서 튀르고는 불과 2년여 만인 1776년에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778년 프랑스는 튀르고가 반대했던 미국 독립전쟁에 본격 개입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7년 전쟁의 패배를 되갚고 영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지출을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미국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길어지자 프랑스는 엄청난 전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승리하며 영국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지만, 프랑스에 돌아온 것은 실질적인 이득 없는 막대한 부채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재정은 완전히 파탄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계속되다

어려움을 겪던 프랑스 민중에게 또 다른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1775년부터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85년 대가뭄, 1787년 대홍수, 1788년 겨울의 기록적 한파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며 식량 위기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급등해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급증했고,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의 반란과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루이 16세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직자와 귀족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했으며 자크 네케르,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 등 유능한 관리들이 개혁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족의 거센 반발과 우유부단한 루이 16세의 태도로 인해 개혁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귀족이 세금을 냈더라면 프랑스 정부 부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평민에게서 수탈해 재산을 쌓아온 귀족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했고 루이 16세는 이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다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재무총감이던 네케르는 1789년 5월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삼부회는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제3신분인 평민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귀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개혁안 표결 방식을 두고 수적으로 우세했던 평민들은 '1인 1표'를 주장한 반면, 성직자와 귀족들은 신분별로 한 표씩 행사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삼부회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고 이에 분노한 평민 대표들은 별도로 국민의회를 결성해 자신들의 요구를 밀어붙였습니다.



단두대로 올라가는 루이 16세.

베르사유 궁전 공식 홈페이지

그러자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루이 16세는 국경을 수비하던 군대를 파리로 불러들였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수도로 진입한다는 소식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왕이 무력을 동원해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개혁을 요구하던 사람들을 탄압하려 한다는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789년 7월 11일 국민의 지지를 받던 네케르가 돌연 해임된 것입니다. 개혁에 반대하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귀족 세력이 주도한 일이었고 이는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7월 14일 시민 수천 명이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가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며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절대왕권의 억압을 상징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습격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전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이 16세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고, 혁명 세력인 국민의회에 권력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루이 16세는 전제 왕정을 회복하려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려다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1793년 38세 나이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귀족들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혁명 정부에 협력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귀족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던 일부 귀족들은 단두대에 오르거나 재산을 몰수당한 채 국외로 쫓겨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인정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처음으로 제시된 인류사의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단순히 정치 제도의 변화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누적된 부채, 불공정한 세금, 기득권의 탐욕이 쌓아 올린 구조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절대 왕정은 수십 년간 쌓아온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그 부담은 가장 힘없는 민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혁명은 결국 '돈'이라는 현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산현초등학교 교사



핵심!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절대왕정의 상징인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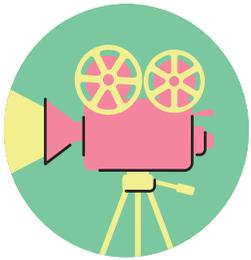
루이 15세

무리한 지폐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왕

루이 16세

우유부단한 정치로 프랑스를 파탄의 길로 이끈 왕

5월엔 포켓몬 잡으러 떠나볼까



문화로 만나는 세상
롯데월드 '스프링캠프'



'포켓몬 풍선비행' 탑승 중 촬영한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전경.

하소윤 인턴기자

바쁜 학업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기간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즐거움을 찾고 추억을 쌓아봐요. 오늘은 기자가 직접 다녀온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 스프링캠프'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두의 친구, 포켓몬

“가라 피카츄, 100만 볼트!” “메타몽, 너로 정했다!”

여러분 '포켓몬스터' 좋아하시나요? 닌텐도 게임으로 즐겨왔거나 애니메이션에서 지우 혹은 리코·로드와 함께 모험을 떠났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저 포켓몬의 귀엽고 멋진 모습에 반했을 수도 있고요.

포켓몬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포켓몬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에서요!

지난 3월부터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포켓몬스터가 손을 잡고 콜라보레이션(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국내 인기 놀이공원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IP(지식재산권)가 힘을 합친다는 소식에 시작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문화정보 CHECK

1. 이벤트 기간

2025년 5월 25일까지

2. 장소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3. 운영 시간

일~목 10:00~21:00

금~토 10:00~22:00

4. 티켓 가격

어른 64,000원

청소년 56,000원

*종합이용권 1Day(종일권)
기준

포켓몬 세계로 떠나자!

롯데월드와 포켓몬스터는 '스프링캠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특별한 이벤트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잠을 좋아하는 잠만보는 들판에서 자고 있고, 물에 사는 야돈은 폭포 근처에 누워 멍때리고 있는 등 여러 포켓몬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롯데월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놀이공원 안을 돌아다니다가 '어, 망나농이다!'하고 포켓몬을 발견해낼 때면 포켓몬 세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바로 '포켓몬 풍선 비행'이에요. 롯데월드에 입장하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하늘에 잔뜩 떠 있는 몬스터볼 모양의 열기구거든요. 몬스터볼은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도구로, 롯데월드는 이를 놀이기구 '풍선 비행'과 결합한 거예요.

포켓몬 풍선 비행에서 볼 수 있는 몬스터볼은 일반 몬스터볼부터 마스터 볼까지 총 10개예요. 저는 포켓몬 '나옹'

이 그려진 '프리미어 볼'에 탔어요. 탑승을 도와주는 직원은 "프리미어 볼 탑승을 환영합니다"라며 포켓몬 세계에 빠져들게 해줬어요. 거대한 몬스터볼에 탑승한 채 롯데월드를 내려다보니 몬스터볼에 잡힌 포켓몬이 된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의 힘

어때요 여러분, 포켓몬을 만나러 롯데월드로 떠나고 싶어졌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롯데월드와 포켓몬스터의 협업 마케팅은 성공한 거예요. 실제로 롯데월드와 포켓몬스터의 콜라보레이션은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켓몬이 포함된 상품의 등장으로 IP 상품 매출은 작년 동일 기간 매출의 7배를 기록했어요. 롯데월드는 포켓몬의 특징을 살린 음식과 제품도 판매하고 있어요. 물을 뿜는 '꼬부기'를 연상케 하는 '꼬부기 물대포 슬러시'와 같은 특별 음료가 여러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롯데월드에 서만 즐길 수 있는 포켓몬 상품은 한정판이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 거죠.

특히 미션 투어를 즐길 수 있는 '탐험 수첩'은 큰 인기를 자랑해요. 수첩이 알려주는 가이드를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미션을 완수하면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획 상품이죠. 한 권당 9000원이지만 가격은 상관없다는 듯 매일 오후가 되면 빠르게 매진된다고 해요.

피카츄가 나와 춤추는 '레츠 고! 포켓몬 스프링캠프' 퍼레이드는 큰 인기에 힘입어 주말 및 공휴일 1일 2회 공연을 1일 3회로 확대 편성됐어요. 여지는 롯데월드 홍보팀장이 "시그니처 공연을 늘려 잡는 것도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포켓몬과 롯데월드의 협업이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지 잘 보여주죠.

롯데월드에 큰 관심이 없다가 포켓몬을 보러 방문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한 시민은 "평소 포켓몬을 좋아해요. 그런데 롯데월드가 포켓몬과 콜라보(레이션)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방문했어요"라고 전했어요. 또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었던 '지우'와 약당 로켓단 삼인방 중 '로이'의 의상을 입으며 롯데월드를 즐기는 방문객도 있었답니다.

하소윤 인턴기자

투자귀재 버핏이 유언장에 쓴 내용은?



게티이미지뱅크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요,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워런 버핏이 남긴 유명한 격언입니다.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돈을 벌까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돈을 잃지 않는 투자’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버핏이 아내 앞으로 미리 써놓은 유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항공비율 포트폴리오’를 유언장에 남겨놨는데요. 투자자산의 90%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최애’ 투자종목

도대체 ETF가 뭔데 버핏이 투자자산의 90%를 ‘물빵’ 하라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ETF는 결국 펀드 상품 중 하나입니다. 보통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가입해야 하는데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ETF는 일반 주식과 똑같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주식 매매 창을 띄워놓고 한 주 단위로 실시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ETF는 펀드매니저의 판단을 배제하고 무조건 ‘지수(index)’를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지수인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지수가 1% 오르면 ETF 수익률도 1% 오르고 지수가 1% 떨어지면 ETF도 똑같이 1% 떨어집니다. ETF 한 주만 투자해도 시장 전체를 보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 뛰어넘는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의 일종인 ETF는 지수를 쫓아다니는

‘패시브(passive) 투자전략’을 구사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와 달리 인덱스 펀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용수수료가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수수료가 싼 대신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ETF나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주식형 펀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투자 관점에서 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반 주식형 펀드는 올해 수익률 10위 안에 들었던 펀드가 내년에도 혹은 그다음 해에도 10위 내에 드는 성적을 올리는 펀드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살펴보면 수익률 100위 안에 드는 펀드가 2년 연속 100위 안에 들 확률은 10~20%를 넘기 힘들습니다.

우리나라도 3년에서 5년 누적 수익률이 코스피에 비해 초과 수익을 내는 펀드는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가장 낮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인덱스 펀드가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도 주식형 펀드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은 95%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뛰어넘는 ETF

ETF도 결국 인덱스 펀드의 일종인데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많은 투자자가 ETF를 선택하게 만드는데 걸까요? ETF는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앞에서 주식형 펀드보다 인덱스 펀드 수수료가 싸다고 했는데 ETF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또 일반 펀드는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환매하려면 이익금의 70% 정도를 환매수수료로 뺏겨내야 하는데, ETF는 일반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 펀드는 매매 주문을 내면 당일 혹은 다음 날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체결되는데 ETF는 주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실시간 가격을 반영해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펀드는 3~4일 후의 기준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해외 지수 추종 ETF의 장점이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ETNET로 승부하라> 저자



허서운 기자의
재테크 첫걸음



경제용어 CHECK

액티브 투자

펀드매니저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비중을 조절하고 편입종목 측면에서도 유망 주식을 발굴해 담을 수 있습니다. 펀드의 투자위험을 키워서 목표 수익률을 높이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죠.

엄마가 아침마다 챙겨준 유산균, 이유 있었네



김보람 기자의
보람찬 건강이야기



게티이미지뱅크

우리에게 ‘유산균’은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가루, 알약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야쿠르트, 음료수, 아이스크림에도 유산균이 들어 있으니깐요. 엄마의 권유에 매일 유산균을 먹는 학생이라면 한 번은 궁금했을 겁니다. 유산균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까요?

프로바이오틱스 vs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우리 몸에서 유산(젖산)을 만드는 모든 미생물을 칭합니다. 젖산은 몸속 유해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장에 자리 잡아 유해균을 막아주는 일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산균 식품을 잘 살펴보면 프로바이오틱스란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 외에도 ‘프리바이오틱스’란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두 물질을 같이 보충하면 장 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겠죠. 이에 유산균 식품에는 보통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모두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인체 건강을 좌우하는 ‘장’

장 건강은 우리 면역력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체 면역세포 70~80%가 장에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장 내 환경이 좋아야 우리 몸도 건강해지겠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밝힌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변비, 설사, 복통 등 소화기 증상 완화에 효과 있을 뿐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체중 조절, 우울증, 불안 등에도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스위스 바젤대학교 연구팀이 낸 연구 결과에 따르면 43명의 우울증 환자가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를 4주간 투여받았더니 우울증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또 2023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권미나 교수·김승일 박사 연구팀은 인체에서 유래된 프로바이오틱스를 발굴해 생쥐에게 경구 투여했더니 항바이러스 물질이 증가했고 그 결과 폐 면역성이 증진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그렇다고 만병통치약은 아냐

다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자꾸 배가 아픈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지 않고 프로바이오틱스만 먹는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겠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약이 아니라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려대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신민수 교수는 “사람들 개인에 따라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건강한 장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충분한 수면도 도움

평소 장 건강을 지키려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オート밀, 현미, 당근, 미역, 키위, 바나나 등이 해당합니다. 물 또한 장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수분은 소화관을 보호하는 점액층을 만들고 장 운동이 원활하도록 돕습니다. 잠도 잘 자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 유해균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식전보다 식후가 좋습니다. 식후엔 위산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나오는 위산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사멸시키기도 합니다.

권장 섭취량·보관 방법 지켜야

지나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복부 팽만감, 장 내 가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가장 좋겠죠. 만약 병원에서 받은 항생제를 먹고 있다면, 2~3시간 간격을 두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합니다. 항생제도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제품의 보관 방법도 지켜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열과 습도에 민감합니다. 냉장보관과 실온보관 중 제품마다 적합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경헬스 기자



- 1 유산균은 젖산을 만드는 미생물
- 2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지키는 유산균
- 3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

중학생도 체험학습 때마다 기록 남겨 두세요

중학생에게 ‘대입’이라는 말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게 바로 대학 입시입니다. 현재 고1인 학생(2028학년도 이후)과 중학생들이 마주할 입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2028 대입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진로가 더욱 강조된다고 하는데 중학생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28 대입 내용과 이에 따른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8 대입의 방향은 진로와 활동 중심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개설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시점에는 전체 대학에서 약 3.5%를 선발하는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 내신 평가가 수능과 함께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에서는 2028학년도 대입 전형 개편 포럼에서 정시에서도 내신 역량 평가를 할 것으로 예고했고, 주요 상위권 대학도 변화의 방향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신 역량 평가는 단순히 내신 성적이 좋은 것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노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진로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 찾기와 기록 습관 만들기

경희대는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고1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 2028학년도 교과이수 권장과목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 요인으로 활용하고, 권장과목은 학과에서 수학하기 위해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 가점요인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상위권 대학에서도 모집단위와 연관된 이수 권장 과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중학생 때는 진로 탐색 과정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독서나 체험학습 등을 했다면 활동에 대한 느낀 점, 알게 된 점을 간단하게 기록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일지를 쓰다 보면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고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진로탐색 일지 예시 표

날짜	활동	느낀 점	관련 진로
4월 12일	교지 만들기 회의	교사 인터뷰를 통해 선생님과 가까워졌고 글을 구성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됨	기자, 작가, 콘텐츠 기획자
5월 20일	과학 체험관 방문	사이클로이드곡선의 사례를 접하면서 평소 어렵다고 생각했던 과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물리학자, 연구자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진로탐색, 대입 전략의 시작점

중학교 때의 기록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알고 입학하는 것은 과목 선택이나 고교활동에서 큰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미리 찾아보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에서 직접 해봤던 경험이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활동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진로가 명확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탐색해보는 것입니다. 진로는 바뀔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게 될 것입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경희대 2028학년도 자연계열 학과에서 권장하는 과목

모집단위	핵심과목		권장과목	
	수학교과	과학교과	수학교과	과학교과
의예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화학, 생명과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	물리학
한의예, 치의예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화학,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	물리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약학, 한약, 약과학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화학, 생명과학,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	물리학
소프트웨어융합,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	인공지능 수학	-
기계공학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물리학, 화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미래정보디스플레이, 생체의공학, 전자공학, 반도체공학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물리학, 화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	-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 2024-254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50회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 TEST



매일경제 아카데미
*공식 인스타그램
@mknews_lab



*공식 유튜브
매테나

시험일
2025.05.24(토)

접수기간
2025.04.07(월)
~ 05.12(월)

건강

꿈

행복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장승준, 손현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